

최근 對中수출 부진 요인과 시사점

2014년 8월

목차

- I. 연구배경 및 목적
- II.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동향
- III. 최근 중국의 수출입 동향
- IV. 한국의 對中 수출 부진 요인
- V. 중국의 수출과 對中 수출간 괴리
- VI. 결론 및 시사점

목차

[요 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1
II.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동향	2
III. 최근 중국의 수출입 동향	5
IV. 한국의 對中 수출 부진 요인	7
1. 중국측 요인	7
2. 한국측 요인	15
V. 중국의 수출과 對中 수출간 괴리	20
VI. 결론 및 시사점	22

【요 약】

금년 들어 우리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제1위 수출시장으로 한·중수교 이후 세계경기 침체기가 아닌 회복·성장기에 대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또한 우리 수출은 대체로 중국의 대외수출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는데 금년 들어 중국의 대외수출이 5~7월중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對中 수출은 같은 기간 감소세가 심화되어 중국수출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 對中 수출 감소는 우선 중국의 수출둔화 및 재고증가, 그리고 원/위안 환율 하락 등의 일시적·경기순환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선 2012년부터 중국의 대외수출 증가율이 한자리대로 둔화되고, 최근 들어 내수부진까지 가세하면서 전반적인 중국의 재고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원화강세 및 위안화약세로 인한 원/위안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 기술력 제고,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3개 품목은 한국이 중국의 수입 1위 국가로 중국의 수입 감소 영향을 한국이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의 국내조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2013년부터 중간재 순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금년에도 중간재 부문의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 이외에도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한국조달 비중 감소 등도 對中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년 1~7월중 대중수출 상위 25개 감소품목중 점유율 하락품목이

17개에 달해 중국의 수요 감소 이외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수출증가 품목 수, 시장점유율의 변화 비교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가장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기업의 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구조, 중국내수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금년들어 다시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유제품,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이외의 여러 주력품목에서도 중국 수출과 우리의 對中수출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기계, 플라스틱, 동제품, 컴퓨터부품 등은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확대되는 반면 우리의 대중수출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수출 감소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가공무역·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일부 기계류 등의 對中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향후 호조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확대가 우리의 대중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첨단 부품소재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중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급 소비재 분야에 대한 수출산업 육성도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 통관되지는 않으나 중계무역, 중국겨냥 제3국 가공무역 등의 무역방식 다양화를 추진하여 대중국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I. 연구배경 및 목적

□ 금년 들어 對中 수출이 둔화되며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2012년 6개월 연속 對中 수출이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對中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대중수출(%) : 0.5('14.1월)→-3.6(2월)→-4.3(3월)→-2.3(4월)→-9.4(5월)→-10(6월)→-7.1(7월)

□ 금년의 對中 수출 감소는 2012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에는 전체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대 중국 및 EU수출도 감소하였고, 對 미국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

○ 반면 2014년은 對 미국, EU, ASEAN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일본, 홍콩 수출도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나 중국만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

< 한국의 국가별 수출증감률 >

(%)

	2011	2012	'11→'12	2013	2014.1~7	'13→'14.1~7
미국	12.8	4.1	↘	6.0	9.6	↗
일본	40.8	-2.2	↓	-10.7	-3.8	↻
중국	14.9	0.1	↘	8.6	-1.2	↓
EU	4.2	-11.4	↓	-1.0	11.0	↑
ASEAN	35.0	10.2	↘	3.6	5.9	↗
총수출	19.0	-1.3	↓	2.1	2.9	↗

자료 : kita.net 한국무역통계

□ 이에 따라 對中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한 논란 확산

○ 중국의 수출부진과 원화절상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주장과 중국기업의 경쟁력제고, 자급율 확대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

- 특히 5월 이후 중국의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對中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라는 우려가 확산

□ 경기순환·구조적 요인 분석 및 향후 對中 수출 전략 변화 필요

○ 수출 감소의 한국측·중국측 요인 등을 추적하여 對中 수출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및 對中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II.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동향

□ 금년 중 전반적인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對中 수출은 감소

○ 지난해 3/4분기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對中 수출이 금년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對中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 확산

- 특히 중국의 대 세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對中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 최근 대중 수출증가율 추이: -9.4%(5월) → -1.0%(6월) → -7.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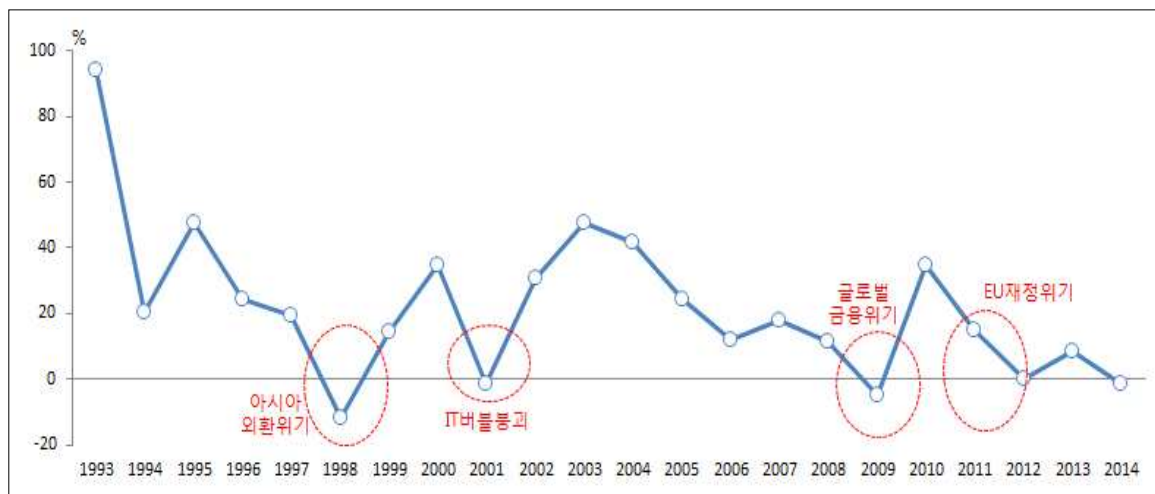
* 최근 중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7.0%(5월) → 7.2%(6월) → 14.5%(7월)

○ 한·중수교 이후 對中 수출은 세계경기 침체기에만 감소세를 나타냈을 뿐 세계경기 회복기 또는 호황기에 감소세를 보인 것은 금년이 처음

- 한·중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對中 수출은 연평균 21.0%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

- 對中 수출이 감소한 해는 1998~99년(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미국 IT 버블 붕괴),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만 감소

< 한국의 對중국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kita.net 한국무역통계

□ 가공단계별로는 반제품, 자본재의 수출 감소 영향이 컸음

- 對中수출의 96.2%를 차지하는 자본재와 중간재(부품,반제품) 반제품, 자본재가 수출 감소를 주도
 - 對中 수출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재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으며 73.6%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수출증가율도 0.6%로 크게 둔화
 - * 중간재중 부품은 금년 1~7월 10.1% 증가, 반제품은 7.8% 감소하여 2013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
- 부품은 반도체 수출 호조(23.1%)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 제외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반도체 제외시 對中부품 수출(%) : 8.8('11) → 6.0('12) → 20.3('13) → 2.3('14.1~7)
-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힘입어 소비재 수출은 두자리대 증가세 지속
 - 금년 7월까지 소비재 수출은 금액비중은 3.3%에 불과하나 12.3% 증가하여 2013년에 이어 두자리 대 증가세 지속

< 한국의 對中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

(억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1차산품	7 (-3.3)	9 (32.4)	9 (3.0)	8 (-18.1)	4 (-6.2) < 2.7>
자본재	317 (39.0)	344 (8.6)	331 (-3.8)	350 (5.7)	184 (-8.0) < 165.7>
소비재	35 (53.9)	47 (32.7)	40 (-16.0)	45 (13.1)	27 (12.3) < -30.9>
중간재	809 (32.9)	941 (16.3)	963 (2.3)	1,056 (9.7)	599 (0.6) < -34.8>
- 부 품	371 (42.5)	387 (4.2)	427 (10.4)	516 (21.0)	306 (10.1) <-289.1>
-반제품	438 (25.7)	554 (26.6)	536 (-3.3)	540 (0.6)	293 (-7.8) < 254.3>
전체	1,168 (34.8)	1,342 (14.9)	1,343 (0.1)	1,459 (8.6)	814 (-1.2) < 100.0>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내는 증감기여율

2. HS6단위를 UN BEC분류와 연계 및 변환하여 집계

자료 : kita.net 한국무역통계

□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인 대형 장치산업의 수출이 감소

○ 주요 감소 품목 : 디스플레이(-10.9%), 석유제품(-24.7%), 전자응용기기(-18.9%), 석유화학중간원료(-6.3%), 석유화학합성원료(-43.5%), 플라스틱(-7.7%)

- 이외에도 기구부품(-2.3%), 건전지·축전지(-8.5%) 원동기펌프(-9.6%)도 감소세

○ 반면, 메모리가격의 강세와 스마트기기 급증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은 증가

-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공장 건설로 인한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한국의 품목별 對中 수출 현황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2013년	2014.1~7월	
1	반도체	21,670 (21.2)	13,452 (23.1)	<-255.3>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8,562 (-9.9)	9,673 (-10.9)	< 119.7>
3	합성수지	7,726 (8.6)	4,408 (1.4)	< -6.2>
4	석유제품	8,380 (-16.0)	4,018 (-24.7)	< 133.3>
5	전자응용기기	7,881 (52.5)	3,725 (-18.9)	< 87.8>
6	무선통신기기	5,164 (28.9)	3,643 (27.5)	< -79.5>
7	자동차부품	5,570 (25.0)	3,579 (15.5)	< -48.6>
8	석유화학중간원료	6,213 (36.2)	3,430 (-6.3)	< 23.3>
9	기초유분	4,462 (12.8)	2,677 (7.7)	< -19.4>
10	철강판	3,191 (0.4)	2,136 (19.0)	< -34.5>
11	기구부품	3,425 (23.1)	1,869 (-2.3)	< 4.5>
12	컴퓨터	2,623 (3.4)	1,599 (9.5)	< -14.0>
13	플라스틱제품	2,945 (19.0)	1,562 (-7.7)	< 13.2>
14	광학기기	2,572 (-7.7)	1,411 (-6.9)	< 10.6>
15	기타중전기	2,203 (30.9)	1,102 (2.6)	< -2.8>
16	건전지및축전지	1,934 (-20.9)	1,043 (-8.5)	< 9.8>
17	자동차	1,747 (14.1)	1,030 (12.2)	< -11.3>
18	석유화학합성원료	2,754 (-24.9)	948 (-43.5)	< 73.8>
19	원동기및펌프	1,630 (1.1)	895 (-9.6)	< 9.6>
20	반도체제조용장비	1,346 (107.0)	875 (78.4)	< -38.9>
총 계		145,869 (8.6)	81,401 (-1.2)	< 100.0>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내는 증감기여율

자료 : kita.net 한국무역통계

Ⅲ. 최근 중국의 수출입 동향

1. 수출

□ 중국의 대외수출은 1~7월중 2.9% 증가로 연초의 감소세가 5월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 : 10.5(1월) → -18.1(2월) → -6.6(3월) → 0.8(4월) → 7.0(5월) → 7.2(6월) → 14.5(7월)

□ 금년 1~4월중 중국의 수출 감소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홍콩에 대한 핫머니 차단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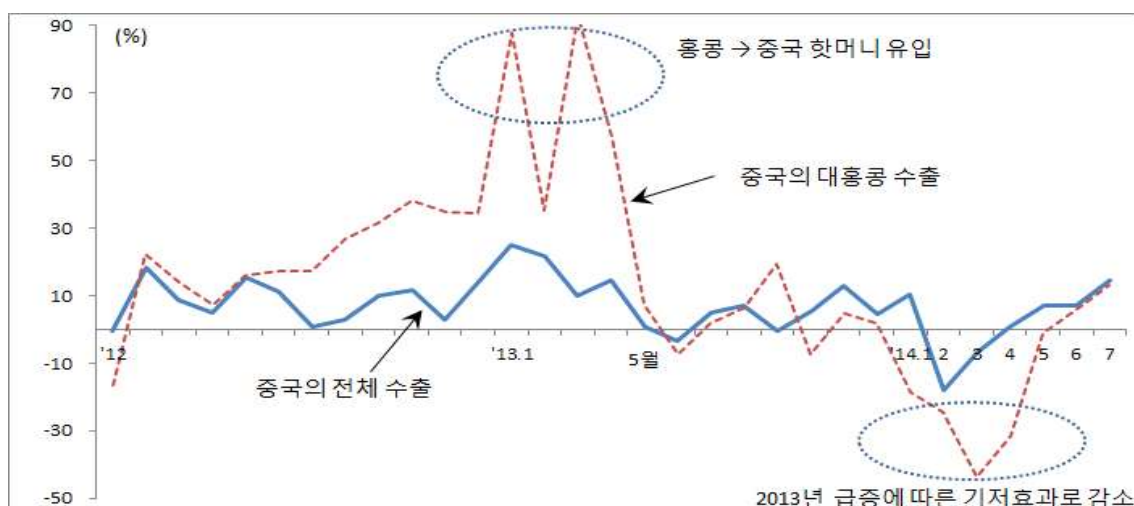
○ 2013년 1~4월중 중국의 대홍콩 수출 급증원인으로 중국정부는 수출 거래를 위장한 투기성 외환자금의 유입으로 발표('13.5/5)

- 중국과 홍콩의 금리차와 위안화 절상을 예상한 투기자금으로 판단

- 대홍콩 수출증감률 : 2013. 1~4월 68.9%, 5~12월 3.4%

○ 2013년 1~4월 대홍콩 수출증가를 5~12월과 같이 3.4%로 가정할 경우 '14년 1~4월 및 1~7월 중국의 총수출은 각각 12.0%,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수출둔화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중국의 전체수출 및 대홍콩 수출 증감률>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2. 수입

□ 중국의 수입은 금년 1~7월중 1.2%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감소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임

○ 국별로는 대만이 감소세를 전환되고 한국도 지난해 7.7% → 2.1% 증가¹⁾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대만, 한국의 수출타격이 가장 컸음

○ 對 한국 : 5~7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1~7월중 2.1% 증가로 증가세 둔화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

○ 對 일본 : 2013년 -10.5% → 금년 1~7월중 2.1% 증가세로 전환

○ 對 대만 : 2013년 13.7% → 금년 1~7월중 -9.1%로 감소세가 컸음

○ 對 미국 : 2013년 12.9% → 금년 1~7월중 7.5%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對 EU : 2013년 2.7% → 금년 1~7월중 14.7%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

○ 對 ASEAN : 2013년 0.7% → 금년 1~7월중 2.6%로 증가세가 확대

<중국의 전체 및 국별 수입 증감률>

(%)

	2013	'1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7월
한 국	7.7	9.4	11.3	0.9	2.7	-5.2	-0.1	-1.8	2.1
일 본	-10.5	5.1	9.3	-0.8	-1.3	-1.3	6.5	-0.1	2.1
대 만	13.7	-11.6	-10.3	-32.9	-12.2	4.8	14.9	-2.9	-9.1
미 국	12.9	14.5	27.5	-7.7	7.3	5.6	-0.7	12.6	7.5
E U	2.7	16.4	20.9	12.0	20.1	14.3	14.3	7.5	14.7
ASEAN	0.7	9.5	9.2	-7.4	-1.8	-5.3	12.6	4.8	2.6
총수입	6.8	10.8	10.4	-11.3	0.7	-1.7	5.5	-1.5	1.2

주 : kita.net 중국무역통계

1) 1~7월중 한국의 對中 수출이 -1.2% 반면 중국의 對韓수입은 2.1% 증가하여 서로 차이가 발생. 이는 수출입 시차, 각국이 수출은 목적지(Destination), 수입은 원산지(Origin) 기준 집계로 홍콩경유 대중국 수출분 누락, 수출은 FOB, 수입은 CIF로 집계하는 등의 차이에 기인

IV. 한국의 對中 수출 부진 요인

1. 중국 측 요인

(1) 중국의 수출 둔화 및 재고증가

□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수출구조로서 중국의 대외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

○ 특히 對中수출 중에서는 반제품과 부품의 수출이 중국의 대외수출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제지표와 한국의 對中수출의 상관관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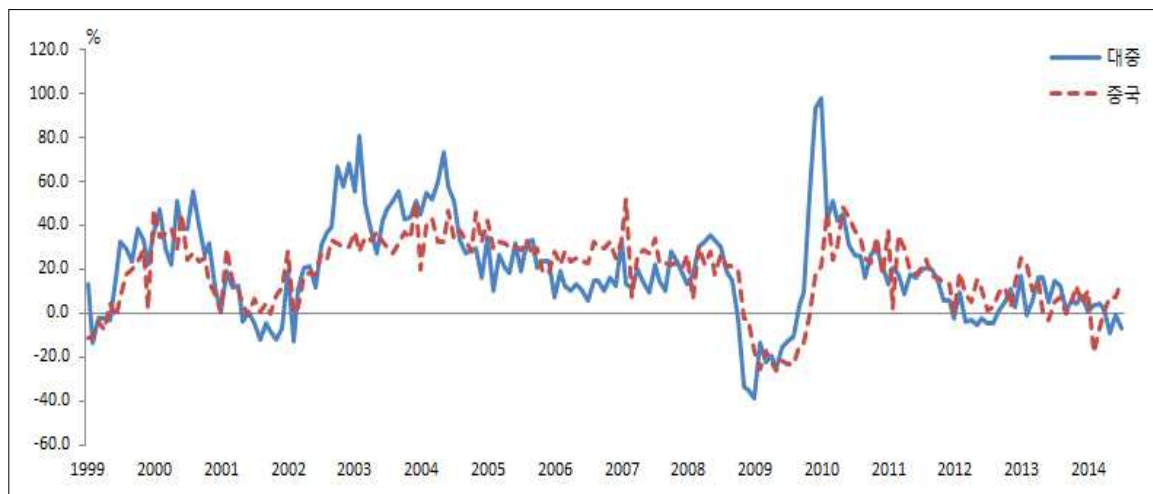
對中수출 중국지표	수출총액	1차산품	중간재		완성품	
			부품	반제품	자본재	소비재
민간소비	-0.18	0.10	-0.42	0.23	-0.31	0.47
정부소비	-0.16	-0.11	-0.31	0.18	-0.40	0.42
수출	0.88	0.66	0.76	0.92	0.70	0.69
투자	0.40	0.53	0.25	0.48	0.48	0.20
총 GDP	0.31	0.49	0.11	0.61	0.14	0.45

주 : 1) 2003 ~ 2013년중 전년비 연간 증감률 기준

2) 對中 수출은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 : kita.net, CEIC

< 중국의 총수출과 한국의 對中수출 증감률 추이 >



자료 : kita.net, 중국해관총서

□ 중국의 수출 부진과 재고증가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이 감소

- 20%대 증가세를 유지하던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12년 이후 7%대로 둔화되었으며 금년 1~7월에는 2.9%로 크게 둔화

* 중국수출(%) : 31.3('10) → 20.3('11) → 7.9('12) → 7.8('13) → 2.9('14.1~7)

- 대외수요 감소와 핫머니 규제강화로 1/4분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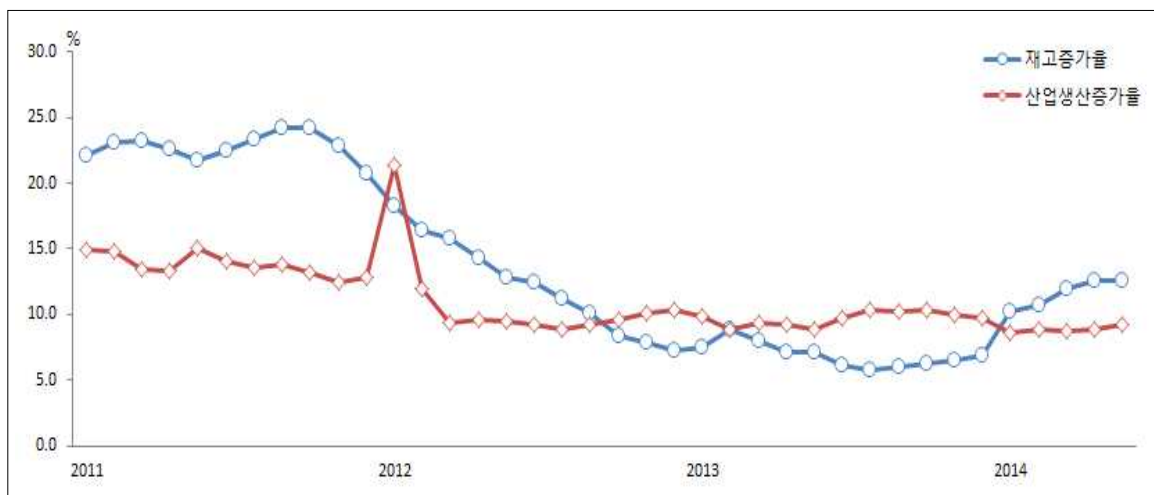
-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지난해 5월 이후 핫머니 규제로 대 홍콩 수출도 크게 감소

* 중국의 대홍콩 수출(%) : 73.9%(2013년 1분기) → -31.5%(2014년 1분기)

-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국의 산업생산 둔화와 재고증가도 對中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지난해 12월 이후 산업생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된 반면,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재고증가율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상회

<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 추이 >



자료: 중국통계국, CEIC

(2)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 및 수입대체 가속화

□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중간재 국내조달 확대로 중간재 수입이 감소

○ 중국의 중간재 수입증가세가 2012년 한자리대로 축소된 후 금년 1~7월중에는 감소세로 전환

- 중간재 수입 증감률(%) : 30.6('10) → 16.2('11) → 2.3('12) → 7.6('13) → -0.0('14.1~7)

○ 중국의 중간재 수입둔화는 부품, 반제품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품의 수입이 6.0% 감소하여 중간재 수입 둔화를 주도

< 중국의 가공단계별 전체 수입 추이 >

(%)

	1차산품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합계
					부품	반제품	
2009년	2,371 (-19.4)	1,836 (-12.2)	426 (-0.4)	5,371 (-7.5)	2,618 (-6.9)	2,753 (-8.1)	10,039 (-11.3)
2010년	3,603 (52.0)	2,470 (34.5)	666 (56.3)	7,015 (30.6)	3,441 (31.4)	3,574 (29.8)	13,939 (38.9)
2011년	5,041 (39.9)	2,802 (13.4)	925 (38.9)	8,149 (16.2)	3,858 (12.1)	4,291 (20.1)	17,416 (24.9)
2012년	5,287 (4.9)	2,767 (-1.2)	1,095 (18.4)	8,333 (2.3)	4,074 (5.6)	4,260 (-0.7)	18,173 (4.3)
2013년	5,488 (3.8)	2,764 (-0.1)	1,218 (11.2)	8,965 (7.6)	4,583 (12.5)	4,382 (2.9)	19,415 (6.8)
14.1~7	3,293 (5.1)	1,610 (2.2)	806 (24.3)	5,123 (-0.0)	2,486 (-6.0)	2,638 (6.3)	11,252 (1.2)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 중간재의 수입이 둔화되면서 중국의 중간재 국내조달지수*가 점차 상승

○ 2008년 대비 2014.1~7월중 중간재 국내조달지수는 모든 산업에서 확대되었으며, 특히 무선통신, 철강금속, 화공품에서 상승폭이 컸음

- 무선통신 137%, 철강금속 98%, 화공품 65%, 기계류 41% 증가

* 중간재 국내조달지수 : (부문별 완성품수출액) / (부문별 부품·소재 수입액)

< 중국의 부문별 중간재 국내조달지수 추이 >

(%)

	2008(a)	2009	2010	2011	2012	2013	14.1~7(b)	증감률 (b/a)
화학공업제품	0.48	0.48	0.50	0.61	0.71	0.77	0.80	1.65
플라스틱	1.48	1.39	1.17	1.30	1.61	1.77	1.86	1.26
섬유류	12.59	12.40	12.79	13.91	13.69	13.72	14.41	1.14
철강금속	2.26	1.53	2.29	2.91	3.34	3.93	4.47	1.98
기계류	1.42	1.35	1.45	1.60	2.01	2.03	2.00	1.41
전기전자	0.88	0.93	0.92	0.97	0.95	0.91	1.01	1.14
-무선통신	5.77	7.50	7.71	9.63	12.63	14.43	13.65	2.37
-컴퓨터	3.60	3.56	3.54	3.74	3.43	3.94	3.72	1.03
-가전제품	15.26	14.07	12.42	14.32	16.12	17.14	17.69	1.16

주 : 1. 중국의 화공품, 플라스틱, 섬유류, 철강금속, 기계류, 전기전자 6개 산업의 HS 8단위를 부품소재와 완성품으로 자체분류하여 계산 (부품 : 2,647개, 완성품 3,734개)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 반면 중국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전화되면서 중간재 수출비중도 증가

-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 : 36.2('05)→38.8('10)→39.5('12)→41.0('13)→41.8('14.1~7)

o 자본재 수출비중도 대체로 증가세이나 2013년 이후 소폭 둔화

< 중국의 가공단계별 전체 수출 비중 >

(%)

	1차산품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기타
					부품	반제품	
2008년	1.5	30.2	27.0	41.1	15.7	25.4	0.2
2009년	1.4	32.1	29.2	37.0	15.8	21.2	0.2
2010년	1.3	31.7	28.1	38.8	16.6	22.2	0.2
2011년	1.2	30.7	27.7	40.1	16.3	23.8	0.2
2012년	1.2	31.1	28.1	39.5	16.4	23.1	0.1
2013년	1.1	29.4	28.5	41.0	17.7	23.3	0.2
2014.1~7	1.1	28.5	28.4	41.8	16.7	25.1	0.1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o 이에 따라 중국은 2013년부터 중간재 순수출국(무역흑자)으로 전환

- 반제품은 2011년 흑자 전환이후 흑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부품은 2010년 이후 적자폭이 축소

* 중간재 수지(억\$) : -886('10)→-523('11)→-233('12)→82('13)→216('14.1~7)

〈 중국의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

(억달러)

	1차산품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기타	합계
					부품	반제품		
2009년	-2,203	2,027	3,088	-923	-715	-208	-7	1,982
2010년	-3,404	2,529	3,765	-886	-819	-67	-158	1,845
2011년	-4,804	3,037	4,332	-523	-755	233	-465	1,577
2012년	-5,050	3,611	4,660	-233	-703	471	-662	2,328
2013년	-5,245	3,725	5,073	82	-679	761	-941	2,693
2014.1~7	-3,152	2,026	2,811	216	-351	567	-402	1,498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3) 대형 장치산업에서의 중국내 생산 자급률 확대

① 석유제품

□ 중국의 원유 정제시설 확충으로 금년 1~7월중 석유제품 수입이 21.4%가 감소한 가운데 對 한국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

○ 중국의 1~2위 수입국인 한국과 ASEAN중 한국의 감소폭이 ASEAN을 크게 상회하여 한국의 타격이 가장 컸음

○ 중국의 대한국 석유제품 수입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 지속
 - 對 한국 수입(%) : 61.4('11) → -9.8('12) → -9.1('13) → -19.0 ('14.1~7)
 - 對 ASEAN 수입(%) : 7.7('11) → 12.1('12) → 14.8('13) → -1.0 ('14.1~7)

〈중국의 원유정제 능력〉

(천배럴/1일)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603 (4.9)	7,165 (8.5)	7,865 (9.8)	8,399 (6.8)	8,722 (3.8)	9,479 (8.7)	10,302 (8.7)	10,834 (5.2)	11,933 (10.1)	12,598 (5.6)

자료 : BP

〈중국의 국가별 석유제품 수입 추이〉

(억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한 국	70 (43.3)	114 (61.4)	103 (-9.8)	93 (-9.1)	46 (-19.0) <22.8>
일 본	20 (4.9)	20 (-1.6)	18 (-10.1)	16 (-8.7)	7 (-26.4) < 5.4>
대 만	7 (-8.5)	8 (15.3)	9 (5.3)	8 (-13.2)	5 (7.5) <-0.8>
E U	6 (131.6)	7 (8.7)	7 (3.0)	10 (46.4)	3 (-58.9) <10.6>
미 국	7 (44.6)	10 (48.3)	12 (25.4)	12 (-1.3)	5 (-27.0) < 4.1>
ASEAN	85 (72.2)	92 (7.7)	103 (12.1)	118 (14.8)	60 (-1.0) < 1.3>
전 체	258 (40.3)	357 (38.1)	371 (3.9)	362 (-2.5)	173 (-21.4) <100>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증감기여율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② 평판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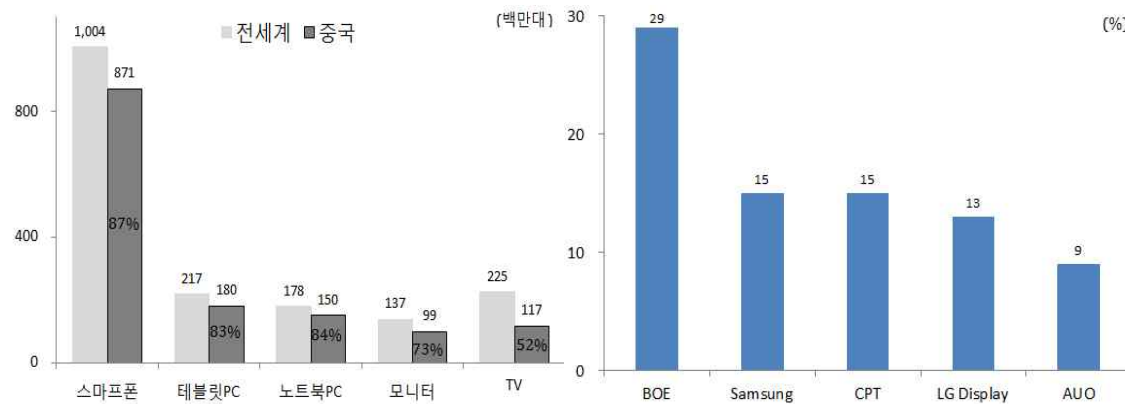
□ 중국 업체의 기술력·생산능력 제고로 중국의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대만 다음으로 컸음

○ 1~2위 수입국인 한국, 대만중 대만의 수출 감소폭이 한국을 크게 상회

- 對 한국 수입(%) : 5.4('11) → -4.8('12) → -4.7('13) → -3.1 ('14.1~7)

- 對 대만 수입(%) : -11.7('11) → 10.9('12) → -4.0('13) → -23.6 ('14.1~7)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 (2013년) > <세계 테블릿패널 출하 비중 ('14.1~6)>



자료 : Display Search, BOE, MRI 자료 재인용

<중국의 국가별 평판디스플레이 수입 추이>

(억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한 국	190 (40.4)	200 (5.4)	190 (-4.8)	181 (-4.7)	101 (-3.1) < 6.8>
일 본	49 (25.5)	57 (15.8)	62 (8.5)	57 (-6.8)	32 (0.1) <-0.1>
대 만	162 (38.3)	143 (-11.7)	159 (10.9)	152 (-4.0)	76 (-23.6) <50.2>
E U	5 (28.0)	6 (22.8)	6 (-4.0)	7 (12.2)	4 (12.5) <-1.0>
미 국	5 (51.3)	5 (5.5)	6 (9.6)	6 (1.2)	5 (46.7) <-3.4>
ASEAN	3 (20.7)	4 (24.6)	6 (47.1)	8 (31.0)	5 (-3.4) < 0.4>
전 체	494 (33.8)	503 (1.9)	537 (6.7)	531 (-1.0)	271 (-14.7) <100>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증감기여율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③ 석유화학제품

□ 중국의 석유화학은 공급확대에 따른 수입대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부 자급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가 나타나고 있음.

○ 업스트림(기초·중간원료)부문 보다는 다운스트림(제품공정)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설비 확대에 따른 중국의 수입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다운스트림 3대 분야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동향

- 합성수지 : 공급능력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폐기물 관리 강화에 따른 폐플라스틱 사용억제로 수요도 함께 증가

- 합섬원료 : 자급율 제고 및 수요 둔화로 큰 폭의 수요 감소를 보임

* 자급률(2013년, %) : 텔레프탈산 (90.5), 에틸렌글리콜(31.0), 카프로락탐(71.8)

- 합성고무 : 공급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생산둔화로 수입 둔화

〈 중국 석유화학 3대부문 수급 현황 및 전망 〉

		2009	2013	2017(전망)	연평균 (‘09~‘13)	연평균 (‘13~‘17)
합성수지	생산	3,630	5,837	8,702	12.6	10.5
	수요	5,715	7,582	9,938	7.3	7.0
	순수입	2,085	1,745	1,236	-4.3	-8.3
	자급률	63.5	77.0	87.6	-	-
합섬원료	생산	1,495	2,331	3,868	11.7	13.5
	수요	2,792	3,517	4,440	5.9	6.0
	순수입	1,298	1,186	571	-2.2	-16.7
	자급률	53.5	66.3	87.1	-	-
합성고무	생산	275	406	601	10.2	10.3
	수요	411	536	677	6.9	6.0
	순수입	136	130	76	-1.2	-12.6
	자급률	66.8	75.8	88.8	-	-
합계	생산	5,400	8,574	13,171	12.3	11.3
	수요	8,918	11,635	15,055	6.9	6.7
	순수입	3,519	3,061	1,883	-3.4	-11.4
	자급률	60.5	73.7	87.5	-	-

자료 : 석유화학공업협회 자료 재인용 (2014.2)

□ 중국의 석유화학 수입감소로 최대 수출국인 한국의 타격이 가장 큼

- 한국의 對中 석유화학 수출 감소는 업스트림에서는 에틸렌, 파라크실렌(PX), 다운스트림에서는 합섬원료에 집중
 - 수출 감소 품목 모두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의 영향이 크나 최대수출품인 파라크실렌(PX)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도 큰 영향을 미침
- 중간원료 및 합섬원료의 경우 금년 1~6월중 중국의 對한국 수입감소가 전체 수입감소의 절반(48.7%)을 차지
 - '14.1~7월 수입감소 기여율(%) : 한국(33.6), 일본(29.7), ASEAN(19.2), 대만(16.0)

〈중국의 국가별 석유화학 수입 추이〉

(억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7월
한 국	61 (15.4)	85 (38.6)	85 (1.1)	94 (9.9)	48 (-12.7) <33.6>
일 본	36 (3.9)	45 (27.9)	46 (1.6)	55 (18.7)	26 (-19.0) <29.7>
대 만	52 (38.2)	69 (32.7)	57 (-17.3)	61 (7.2)	33 (-9.2) <16.0>
E U	5 (0.8)	5 (7.2)	7 (39.1)	6 (-15.3)	3 (-12.8) < 2.2>
미 국	11 (23.8)	12 (15.8)	17 (39.7)	16 (-4.6)	11 (6.5) <-3.2>
ASEAN	28 (57.4)	47 (64.7)	41 (-10.9)	49 (19.0)	25 (-13.9) <19.2>
전 체	260 (32.3)	368 (41.8)	354 (-4.0)	380 (7.5)	202 (-9.3) <100>

주 : 1. MTI 212(석유화학중간원료) 213(석유화학합섬원료) 기준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증감기여율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2. 한국 측 요인

(1) 원/위안 환율의 하락 (원화가치 상승)

□ 금년 1월말부터 7월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원/위안 환율이 9% 하락

○ 1월 28일 179.25원까지 상승했던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이 7월 4일 162.52원으로 약 9.3% 하락

- 금년 들어 원/달러환율은 상승한 반면 위안/달러 환율은 하락하여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

* 중간환율 기준 올해 들어 6월 3일까지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1.22% 상승하였으며, 연중최저치(1/14일) 6.0930 위안/달러에 비해서는 1.28% 상승

□ 위안화대비 원화환율 하락으로 對中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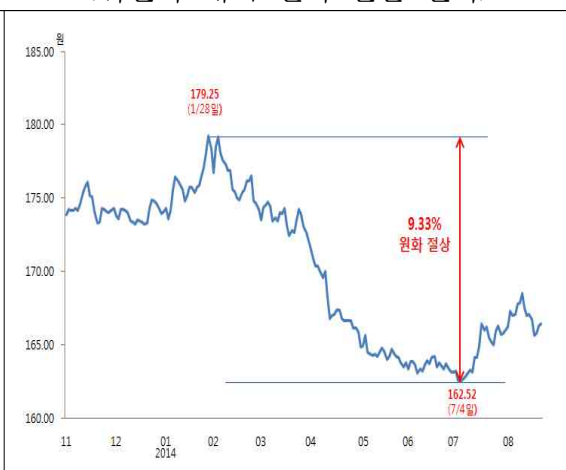
○ 위안화대비 원화환율의 하락으로 가격탄력성이 높은 품목들의 대중 수출이 타격을 입음

○ 금년 한국의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 상승도 위안화 절하로 임가공료 하락에 따른 요인도 영향을 미침

<달러 대비 원화와 위안환 환율 변화>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 변화>



자료: 한국은행

(2) 對 중국 투자 둔화 및 현지법인의 對한국 조달비중 감소

□ 최근 한국의 對 중국 투자가 정체된 반면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은 증가세를 보임

- 한국의 對中투자(억\$) : 38.9('06) → 26.9('10) → 30.4('12) → 30.5('13) → 28.0('14.1~6)
- 일본의 對中투자(억\$) : 46.0('06) → 40.8('10) → 73.5('12) → 70.6('13) → 24.0('14.1~6)

〈 중국의 국가별 FDI 유입액 추이〉

(억달러)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독일	미국
2006	38.9	46.0	21.4	202.3	22.6	19.8	28.7
2007	36.8	35.9	17.7	277.0	31.8	7.3	26.2
2008	31.4	36.5	19.0	410.4	44.4	9.0	29.4
2009	27.0	41.0	18.8	460.8	36.0	12.2	25.5
2010	26.9	40.8	24.8	605.7	54.3	8.9	30.2
2011	25.5	63.3	21.8	705.0	61.0	11.3	23.7
2012	30.4	73.5	28.5	655.6	63.1	14.5	26.0
2013	30.5	70.6	20.9	734.0	72.3	20.8	28.2
2014.1~6	28.0	24.0	13.2	414.3	30.5	9.3	15.8

자료 : CEIC

- o 또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법인의 경우 제조 원부자재의 한국조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 현지매입 비중은 점차 상승세를 보임

〈 對中 투자 현지법인의 매출입 구성〉

(%)

	매출			매입		
	현지	제3국	한국	현지	제3국	한국
2005	51.0	36.3	12.6	40.8	16.3	42.9
2006	50.2	33.4	16.5	43.9	15.1	40.9
2007	51.5	31.3	17.3	51.0	12.4	36.7
2008	54.2	20.6	25.2	52.0	17.6	30.4
2009	59.1	14.2	26.7	59.4	16.7	23.9
2010	59.2	8.5	32.2	62.5	13.1	24.5
2011	58.7	8.0	33.2	58.1	12.0	29.9
2012	57.7	7.0	35.4	57.4	12.7	29.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각 연도별)

(3) 對 중국 수출경쟁력 약화

□ 금년 중국의 對韓 수입 감소 상위 25개 품목중 점유율 하락 품목이 17개에 달해 중국의 수요감소 이외 對中 수출경쟁력 약화도 작용

- 중국의 수입증가 품목중에서는 철강관·선(-4.1%), 운반하역기계(-3.5%), 광학기기(-1.6%), 축전지(-1.2%)등의 점유율이 1% 이상 하락
- 중국의 수입감소 품목중에서는 선박·부품(-6.2%), 합섬원료(-5.5%), 정전기(-1.7%), 종이제품(-1.6%)의 점유율이 1% 이상 하락

〈 중국의 對한국 수입감소 품목의 점유율 변화 ('14.1~7) 〉
(%, %p)

중국의 수입 증가					
한국의 점유율 하락 (11개)			한국의 점유율 : 상승		
철강관·선	(27.0)	<-4.13>			
의류	(23.8)	<-0.72>			
운반하역기계	(13.4)	<-3.45>			
염료·안료	(8.8)	<-0.67>			
원동기·펌프	(6.3)	<-0.81>			
플라스틱제품	(5.5)	<-0.80>			
건전지·축전지	(4.6)	<-1.17>			
도료·잉크	(1.7)	<-0.89>			
광학기기	(1.5)	<-1.56>			
동제품	(1.2)	<-0.91>			
기구부품	(1.2)	<-1.08>			
중국의 수입 감소					
한국의 점유율 하락 (6개)			한국의 점유율 상승 (8개)		
선박·부품	(-7.1)	<-6.20>	합성고무	(-11.0)	<0.27>
석유화학합섬원료	(-17.4)	<-5.51>	석유제품	(-21.5)	<0.77>
정전기	(-12.9)	<-1.74>	석유화학중간원료	(-4.0)	<1.21>
종이제품	(-1.9)	<-1.61>	전선	(-7.7)	<1.43>
인조 장섬유 직물	(-2.1)	<-0.24>	편직물	(-8.9)	<1.59>
수동부품	(-10.7)	<-0.09>	영상기기	(-15.1)	<3.04>
			건설광산기계	(-7.0)	<3.14>
			평판디스플레이센서	(-14.7)	<3.15>

주 : ()내는 2014.1~7월중 전년동기대비 중국의 수입증감률, < >는 한국의 점유율 변화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 중국의 국별 상위 30개 수입 품목중 한국이 여타국에 비해 수입 감소 및 점유율 하락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감소 : 한국(13개), 대만(13개), ASEAN(12개), 미국(12개), 일본(11개)
- 점유율감소 : 한국(19개), 대만(16개), 미국(17개), 일본(17개), ASEAN(10개)
- 반면 한국은 EU,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수입비중 증가 품목에 주력하고 있어 수출상품 구성요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국별 상위 30개 품목중 수입비중 확대 품목 해당 여부
한국(20개), 일본(19개), 대만(17개) ASEAN(17개), 미국(22개), EU(26개)
- 전반적으로 한국의 對中 수출은 일본, 대만, ASEAN에 비해 중국의 수입확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나 경쟁력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출증가, 점유율, 상품구성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EU의 수출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국별수입 상위 30개 품목의 불변시장점유율²⁾ 분석 ('14.1~7월) >
(개수)

	국별 수입액 증가 품목 수					국별 수입액 감소 품목 수				
	점유율증가		점유율감소		소계	점유율증가		점유율 감소		소계
	상품구성 비중증가	상품구성 비중감소	상품구성 비중증가	상품구성 비중감소		상품구성 비중증가	상품구성 비중감소	상품구성 비중증가	상품구성 비중감소	
한 국	5	4	8	0	17	0	2	7	4	13
일 본	6	4	9	0	19	0	3	4	4	11
대 만	6	6	5	0	17	0	2	6	5	13
ASEAN	12	4	2	0	18	0	4	3	5	12
미 국	9	4	5	0	18	0	0	8	4	12
E U	18	2	7	0	27	0	0	1	2	3

주 :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MTI 3단위 기준
자료 : kita.net 중국무역통계

2) 불변시장점유율(CMS)분석은 대 중국수출 증감을 ①중국의 총수입규모 변화 ②각 품목이 중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상품구성변화) ③특정품목의 한국의 점유율 변화 등 3가지로 분해하는 방법임. 중국 총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①번 요인은 항상 양의 값을 취하여 ②, ③번 요인만 부호(+/-)로 표시하여 국가별로 집계하였음

※ 對中 가공무역 수출 동향

□ 금년도 對中수출 감소는 非 가공무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점차 하락하였으나 금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
- 이는 지난해와 달리 가공무역의 수출증가율이 비가공무역의 수출증가율을 상회한데 따른 것임

* 중국의 對韓 가공무역 수입증감률 : 2.9% (2013년) → 11.2%('14.1~5월)

* 중국의 對韓 非가공무역 수입증감률 : 12.4% (2013년) → -3.7%('14.1~5월)

- 가공무역은 중국 수입시 중국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제3국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임
- 한국의 對中 가공무역 증가는 원/위엔 환율 하락으로 중국 임가공 잇점이 커진데 따른 것이며, 非가공무역 감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판단

< 중국의 對한국 무역형태별 수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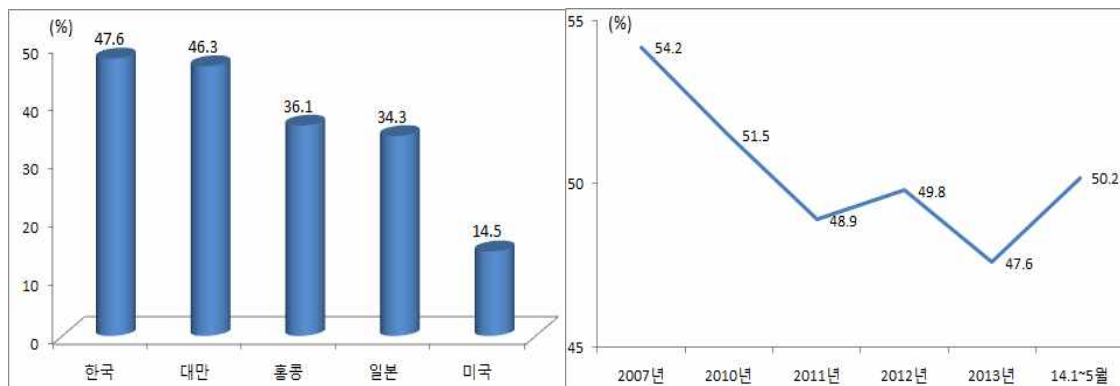
(억달러, %)

	2013.1~5월		2014.1~5월		증감률
가공무역	338	(46.6)	376	(50.2)	< 11.2>
비가공무역	387	(53.4)	373	(49.8)	< -3.7>
- 일반무역	256	(35.3)	258	(34.5)	< 0.8>
- 기타무역	131	(18.0)	115	(15.3)	<-12.5>
총 액	725	(100.0)	749	(100.0)	< 3.2>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비중, < >는 증감률

자료 : 중국해관총서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 비교 (2013년) > <한국의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 >



V. 중국의 수출과 對中수출 간 괴리

□ 금년 5~7월중 중국의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中 수출 감소로 주요 품목의 중국 수출 증감률과 한국 對中수출 증감률 간의 괴리(디커플링)가 나타남

○ 주요 12개 품목에 대한 중국수출 증감률과 한국의 對中수출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금년 1~4월 대비 5~7월중 모든 품목에서 괴리(디커플링)가 발생

- 앞에서 분석한 석유화학,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일반기계, 플라스틱, 컴퓨터부품, 동제품 등은 중국의 수출은 증가세 확대(전환)인 반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감소세 확대(전환)가 나타나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휴대폰, 컴퓨터부품의 중국수출은 완제품 수출기준

○ 석유제품,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괴리발생이나 여타품목은 괴리 발생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짧은 시계열로 인해 향후 품목별로 보다 세밀한 분석 필요

○ 중국의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에도 주력 품목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가 있음

< 대중국 상위 수출품목의 중국수출과의 괴리 여부 >

구 분	'14.1~3월 → '14.4~7월	품 목
괴리 확대 매우 큼	• 중국 : 증가세 확대	휴대폰부품, 컴퓨터부품, 일반기계, 플라스틱, 동제품, 직물·섬유사, 인쇄회로기판, 석유제품 (8개)
	• 한국 : 감소세 확대	
괴리 확대	• 중국 : 감소세 둔화	선박·부품, 광학기기 (2개)
	• 한국 : 감소세 확대	
	• 중국 : 증가세 확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2개)
	• 한국 : 감소세 둔화	

주 : 1. 수출 호조·회복을 보이는 메모리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3개 품목 제외
2. 휴대폰부품에는 시스템반도체 포함

〈 중국 대외수출과 한국 對中수출의 증가율 괴리 현황 〉

(%)											
품 목	구분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1~4	'14.5~7	'14.1~7
휴대폰 부품	중국의 수출	2.7	-3.4	22.8	20.0	5.5	6.7	32.6	9.9	13.7	11.6
	對中수출	0.3	6.5	11.5	5.3	-14.2	19.6	-16.0	5.8	-5.6	0.7
컴퓨터 부품	중국의 수출	-5.7	-5.9	-3.7	20.9	33.1	35.1	22.6	0.8	30.1	12.3
	對中수출	-20.0	30.7	58.6	-14.8	-32.0	14.3	35.3	7.8	-3.3	3.3
디스 플레이	중국의 수출	-19.7	-28.4	-31.6	-6.7	1.2	-0.8	9.1	-22.1	3.2	-12.2
	對中수출	-12.0	-8.3	-11.7	-9.4	-15.9	-1.9	-3.6	-10.4	-7.4	-9.1
인쇄회로 기판	중국의 수출	-0.4	-5.7	-7.5	-1.3	-1.8	-2.5	4.6	-3.6	0.1	-1.9
	對中수출	-6.0	8.4	14.5	8.3	-19.5	-12.5	-11.8	6.0	-14.7	-3.5
일반 기계	중국의 수출	22.8	-14.2	9.9	12.0	8.9	8.4	12.2	8.9	9.9	9.3
	對中수출	-1.2	4.8	2.9	-1.3	-17.0	-18.0	-21.8	1.2	-19.0	-8.1
석유 화학	중국의 수출	21.9	6.9	2.7	10.5	18.4	15.8	16.5	10.0	16.9	13.1
	對中수출	-3.9	-15.6	-7.2	-4.5	-5.3	-1.4	-2.8	-7.8	-3.2	-5.9
플라 스틱	중국의 수출	28.5	-15.3	15.8	19.0	13.8	11.1	19.5	14.1	14.8	14.4
	對中수출	-3.8	14.8	0.9	-11.0	-24.0	-11.7	-8.6	-1.2	-15.1	-7.7
동제품	중국의 수출	-3.0	-38.5	-40.5	-8.8	14.5	29.4	19.9	-24.1	21.0	-7.3
	對中수출	-32.5	-36.0	-25.0	-40.4	-59.0	-35.0	-20.1	-33.8	-39.8	-36.3
섬유사 직물	중국의 수출	16.8	-34.8	12.1	6.1	9.1	9.6	11.7	1.9	10.3	6.0
	對中수출	-17.5	13.1	-9.7	-9.8	-13.2	-10.7	-4.0	-6.9	-9.4	-8.1
석유 제품	중국의 수출	-5.1	-6.8	1.7	-20.7	-13.5	15.0	17.4	-7.9	4.4	-3.0
	對中수출	-12.2	-40.9	-24.8	-19.5	-47.5	-17.1	-9.8	-24.8	-25.2	-25.0
선박 부품	중국의 수출	17.9	-40.9	-27.2	-12.2	3.2	-6.8	-8.7	-12.9	-3.9	-8.8
	對中수출	13.7	76.3	-33.7	-54.1	-57.4	-48.5	-71.4	-23.4	-61.6	-46.2
광학 기기	중국의 수출	0.8	-14.7	-10.4	-2.6	-0.4	-7.6	1.3	-6.2	-2.1	-4.3
	對中수출	-5.4	6.7	0.2	-1.1	-15.0	-8.2	-7.9	-0.2	-10.5	-4.9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中國수출은 중국의 대외수출(중국통계), 對中수출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한국통계)
 3. 분석의 통일을 위해 한국, 중국 모두 HS6단위를 MT1 3단위로 변환
 4. 휴대폰부품(시스템반도체포함) 및 컴퓨터부품의 中國 수출은 완성품
 5. 섬유사, 직물의 中國수출은 섬유제품
 자료 : kita.net

Ⅵ. 결론 및 시사점

□ 금년 들어 지난해 대비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對中수출은 감소세를 시현

○ 특히 연초 감소세를 보인 중국수출이 5~7월중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對中 수출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여 양자간 괴리가 확대

○ 중국 통계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중국에 대한 중간재 위주 수출국가의 수출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

- 중국의 국별 수입증감률 : 한국(2.1%), 일본(2.1%), 대만(-9.1%), ASEAN(2.6%), 미국(7.5%), EU(14.7%)

□ 최근의 對中수출 감소는 중국의 수출둔화 및 재고증가, 원/위안 환율 하락 등의 일시적 경기순환 요인이 큼

○ 2012년부터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한자리대로 둔화되고, 최근에는 내수부진도 가세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재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화강세, 위안화 약세로 원/위엔 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도 약화

□ 한편 주력 수출 품목에서는 중국의 공급능력·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對中수출 감소는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대형 장치산업분야의 영향이 컸으며 상기 3개 산업 모두 중국의 공급능력이 크게 향상됨

○ 상기 3개 품목의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로 중국의 상기품목 수입 1위국인 한국의 수출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對中수출 감소 3대 품목과 중국시장에서의 영향 〉

(%)

	對中 수출 영향
석유제품(-21.4%)	• 한국 (22.8%) > EU(10.6%) > 일본 (5.4%) > ASEAN(1.3%)
평판디스플레이 (-14.7%)	• 대만 (50.2%) > 한국(6.8%) > ASEAN (0.4%) > 일본(-0.1%)
석유화학 (-9.3%)	• 한국 (33.6%) > 일본(29.7%) > ASEAN(19.2%) > 대만(16.0%)

주 : 1. 상기품목 모두 한국이 중국의 수입 1위 국가임
 2. 품목의 ()는 중국의 2014.1~7월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감률
 3. 국가의 ()는 2014.1~7월중 중국 수입감소액에 대한 국가별 수입감소 기여율
 4. 석유화학제품은 기초원료를 제외한 중간원료(MTI212) 및 합섬원료(MTI213)

- 중국의 전반적인 중간재 국내조달 확대가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은 2013년부터 중간재 순 수입국(무역전자) → 순 수출국(무역흑자)으로 전환되었으며 금년 1~7월중 중간재 무역흑자가 확대 추세

□ 또한 대중국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對한 국조달 비중 축소 등의 구조적 요인도 對中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1~7월 對中수출 상위 25개 감소 품목중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 품목이 17개에 달해 한국의 경쟁력 약화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수출증가 품목수,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간재 위주 상품구조,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소추세를 보이던 對中 수출의 가공무역 비중이 금년 들어 다시 50%를 상회
- 상기 3개 품목 이외에도 일반기계, 플라스틱, 컴퓨터부품 등 주력 품목 대부분에서 중국수출 회복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구조적인 수출 감소 여부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

□ 가공무역·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對中 수출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 반도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일부 기계류 등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수출 호조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구조 다각화가 시급한 실정

□ 對中수출 고도화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첨단 부품·소재 개발, 고급소비재 산업 육성 및 서비스형 무역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

① **첨단 부품·소재 개발** :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전자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여 중국의 수출확대가 한국의 對中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전략 필요

② **고급소비재 산업 육성** : 중국의 수입구조가 내수형으로 전환되고 고급소비재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소비재의 브랜드화, 품질고급화 및 온라인 B2C몰 활용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 노력 필요

③ **서비스형 무역 확대** : 국내에서 통관되지는 않으나 중계무역, 중국 겨냥 제3국 가공무역 등의 무역방식 다양화를 추진하여 대중국 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확산할 필요

④ **한·중 FTA 체결 확대** : 중국내 관세가 면제되는 가공무역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 내수용 품목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이 낮은 만큼 한중 FTA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